## 제3강 취미판단의 제1계기: 성질의 범주에 따른 고찰 (1)

(1교시)

### ◆ 범주와 판단

※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『판단력 비판』의 표제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| |
|---|
| 제1장 미의 분석론<br>　취미판단의 제1계기: 성질의 범주에 따른 고찰 |

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'범주'와 '판단'이라는 용어를 확인해야 한다.

### ▲ 범주

(1) 범주란?

개념 ■■ 지성개념 ■■ 경험개념
　　■■　　■■ 순수개념 = **범주**
　　■■ 이성개념

범주는 사고의 틀이다.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.
→ 취미판단도 판단이므로 당연히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.

(2) 네 가지 범주와 판단의 명칭

**범주 ■■ 분량범주 ■■ 단일성 ----- 단칭판단**
**　　■■　　■■ 다수성 ----- 특칭판단**
**　　■■　　■■ 전체성 ----- 전칭판단**
**　　■■**
**　　■■ 성질범주 ■■ 실재성 ----- 긍정판단**
**　　■■　　■■ 부정성 ----- 부정판단**
**　　■■　　■■ 제한성 ----- 무한판단**
**　　■■**
**　　■■ 관계범주 ■■ 실체와 우유 ----- 정언판단**
**　　■■　　■■ 원인과 결과 ----- 가언판단**
**　　■■　　■■ 상호성 ----- 선언판단**
**　　■■**
**　　■■ 양상범주 ■■ 가능성 ----- 개언판단**
**　　■■ 현실성 ----- 실언판단**
**　　■■ 필연성 ----- 필언판단**

※ 성질범주의 '실재성'과 양상범주의 '현실성'은 일상 언어의 의미로는 혼동될 수 있지만 칸트가 사용하는 용어상으로는 엄격히 구분된다.

- 실재성(reality): 성질, 속성에 대한 규정. 인식의 내용을 형성.
- 현실성(actuality): 현존하고 있음. '지금 여기에 있다'는 의미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예) 일각수는 뿔이 하나다.

: 이 명제에서 '뿔이 하나다'라는 것은 실재성에 속한다.

그러나 일각수라는 것이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현실성에 속할 수는 없다.

**▲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**

(1) 모든 판단 (명제)는 네 가지 범주, '분량, 성질, 관계, 양상'범주를 모두 포함한다.

예1) 이 칠판은 초록색이다.

분량범주_단일성_단칭판단 : 이 칠판

성질범주_실재성_긍정판단 : 초록색이다

관계범주_실체와 우유_정언판단: 이 칠판은 실체, 초록색은 우유

양상범주_현실성_실언판단: 여기 이 칠판이 지금 실제로 초록색이다.

예2) 이 장미는 아름답다.

분량범주_단일성_단칭판단 : 이 장미

성질범주_실재성_긍정판단 : 아름답다

관계범주_실체와 우유_정언판단: 이 장미는 실체, 아름다움은 우유

양상범주_현실성_실언판단: 여기 이 장미가 지금 실제로 아름답다.

예2는 취미판단이지만 예1과 같은 방식으로 범주가 적용된다.

(2) 취미판단에도 물론 범주가 적용된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 **취미판단**

※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을 p.15, "**§1.취미판단은 감성적이다**"부터 읽어나가면서 나오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리한다.

▲ **취미**

(1) 취미(Geschmack; taste) : 미(美)를 판정하는 능력 (칸트의 정의)

(2) 취미판단 : 미에 대한 판단은 감성적이다.

▲ **표상** (Vorstellung; representation)

Vorstellung = vor(~앞) + stellung(세움)
→ **앞에 세워진 것 (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 앞에 세워진 것)**
: 지성개념, 이성이념, 지각, 감각 등을 모두 포괄한다.

비교) **인식** : 학적인 앎.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인 앎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칸트의 저작에서 대부분 인식은 학적인 앎 / 과학적 지식 / 현상계에 대한 앎 을 의미한다.

객관적 진리

▲ **지성** (Verstand; understanding)

: 결합능력 - 다양한 것(多者)을 결합해서 하나(一者)로 만드는 능력
범주능력 - 칸트는 결합의 근본 틀로서 범주를 제시했다.
개념능력 - 一者는 곧 개념이다.

※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Verstand를 오성(悟性)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'지성'이 보다 적합한 번역어이다.

▲ **객관과 주관**

(1) 객관(적)
objekt = ob(밖에) + jekt(던져짐) → **밖에 있는 것** ---a.

※ 대상, Gegenstand = gegen(마주) + stand(세움) → 마주 세워진 것 ---b.
표상, Vorstellung = vor(앞에) + stellung(세움) → 앞에 세워진 것 ---c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밖에 서있는 것(a.)이 나와 마주 서있을 때(b.) 그것이 내 앞에 바로 앞세워질(c.) 수도 있으나 잘못 앞세워질(c.) 수도 있다.

⇒ 밖에 던져진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객관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이는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.

즉, 객관은 인식 내용(성질) 규정에 있어 반드시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. 흔히 일상 언어에서 '객관적'이라는 말을 '보편적'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객관이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에서 상당히 응용된 의미이다.

(2) 주관(적)

subjekt = sub(밑에) + jekt(던져짐) → **밑에 놓인 것**

원래 subjekt는 '실체'를 의미했다. 데카르트 이후 실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'주관'이라는 의미를 얻었다.

※ 서양사상에서 subjekt의 의미 변화

: 데카르트 이전에는 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을 나의 바깥에 있는 무엇으로 보았다. 고대철학자들은 그 근거를 '아르케(arche: 원질)'라고 했다. 그러나 데카르트 이후 근세철학에 이르러서는 그 근거를 나(인간 정신)이라고 보기 시작했다. 이때부터 '밑에 놓인 것'이 '주관'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.

**▲ 취미판단의 주관성**

*"취미판단의 감성적이다." p.15*

: 따라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.

*"심지어 감각들의 관계조차도 객관적일 수 있지만" p.15*

: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'밖에 있는 것'이라는 의미임을 기억해야 한다.

주의! 감각의 주관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.

**▲ 취미판단에 관한 학문**

※ 학문(Wissenschaff, 學) : 보편타당성을 지님. 체계를 통한 진리 주장.

**취미판단**은 주관적인 판단이다.

⇒ 그 내용은 보편타당성을 내세울 수 없다.

⇒ 학문으로 정립시킬 수 없다.

**취미판단의 메카니즘**은 보편적일 수 있다.

⇒ 학문이 될 수 있다.

**취미판단의 가능조건에 대한 탐구**: 인식능력들(감성, 상상력, 지성, 이성)의 관계를 해명

공통감(모든 이들에게 그 메카니즘이 공통적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⇒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 주장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